

전주 방위산업 발전에 박차 가한다

전주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비나텍,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선정 현재까지 전주시 업체 3개 사, 총 6억1700만원 국비 획득 성과 달성 전주국방벤처센터, 아낌없는 지원 통한 전주시 기업 선정 포부 밝혀

전주시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에 전주국방벤처센터(이하 전주벤처) 협약기업인 비나텍(주)이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은 민간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이들의 국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다. 전주시 기업으로는 2015년 (주)그린탑, 2016년 (주)바르텍시너지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3억 17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올해 비나텍(주)가 추가로 선정되면서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3개의 전주시 업체가 총 6억 1700만 원의 국비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신규 과제 협약식은 1일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됐으며 비나텍(주)은 이번 지원을 통해 디젤 엔진이 흑화기에도 원활한 시동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동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주국방벤처센터는 향후에도 협약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주시 방위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국방벤처센터는 지난 2009년 개소한 이래 지역 내 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국방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경영 지원 등 다각화된 지원을 전개해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방위사업청 사업 선정을 통해 그간의 국방사업 진출을 위한 전주벤처와 협약기업 간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전주시 업체 2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부단히 애쓰는 등 향후에도 전주시와 전주벤처가 합심해 지역 중소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익산시의원 선거법 위반관련 압수수색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날 31일, 현직 익산시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은 이날 A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한편, 익산 시내 마을회관 등 6곳의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확보했다.

A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인 6월 8일과 9일에 차량을 동원, 지역구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로 차량 동원 대수와 실어나른 유권자 수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해당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익산=우병희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안전실천 결의대회 가져

국립임실호국원은 1일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기 참매,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무더운 날씨에 과부하로 정전대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호국원 내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1일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기 참매,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무더운 날씨에 과부하로 정전대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호국원 내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팔복예술공장 '입소문마케팅' 나선다

전주시, 관광·보행자 안내판 설치 등 여행안내 제공키로

한옥마을·덕진공원·팔복예술공장 연계한 관광루트 활성화

성공적인 문화재생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입소문 마케팅이 전개된다.

전주시는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이 실용적으로 만나 문화플랫폼으로 재창조된 팔복예술공장을 문화여행 명소 만들기 위해 지난날 31일 경기전과 전주한옥마을을 관광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도시

관광해설사 50여명이 나서 팔복예술공장에 대한 스토리 답사를 했다. 팔복예술공장은 팔복동 쏠렉스 공장 카세트테이프 폐산업시설을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지난 2월에 개관한 이후 약 1만여 명이 방문했다. 최근에는 문화재생을 연구하기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 가족과 연인들의 사진촬영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관광해설사들을 대상으로 팔복예술공장을 돌아보고 예술의 힘을 통해 재생된 팔복예술공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을 연계한 관광루트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해설사들은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추천코스인 팔복예술공장 탐방을 추천하는 등 여행객 입소문마케팅을 통한 팔복예술공장 홍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주IC 초입에 있는 팔복예술공장에 대한 여행안내와 도보 여행객 편의를 위해 차량 운전자를

위한 관광안내판과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안내판을 신설하고 재정비하기로 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팔복예술공장은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을 연결한 관광루트를 만들기 위해 전주여행의 스토리텔러인 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팔복예술공장 예술시설을 돌아보고 스토리 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전주여행객들의 팔복예술공장 방문 편의를 위해 관광안내판을 정비도 서둘러 팔복예술공장이 전주여행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로 예술관광의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문 마케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사회적경제서 꿈꾸는 'SE:로운' 청소년

전주시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캠프' 열어 사회문제 토론·경제조직 구상·기업 탐방

최근 전주시시혁신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전주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8 전주 사회적경제 청소년 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모집한 청소년 사회적경제 동아리 'SE:로운'(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사회적경제 청소년 동아리 SE:로운은 전주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되었으며,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기존의 사회적경제의 틀을 벗어나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아 활동할 예정이다.

캠프는 SE:로운의 발대식 및 워크숍 수업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교육과 비주얼씹기를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또한,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주)누이단팻빵을 방문하여 실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견학하고, (주)누이단팻빵 이형약대표로부터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소셜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캠프에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도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라는 공정의 관심사로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김창환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구성된 사회적경제 동아리로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SE:로운이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배우고 활동하는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53년생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으세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서 연중 무료 예방접종 가능

전주시보건소가 겨울철 노년층 사망률이 높은 폐렴증과 뇌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1일 보건소에 따르면, 콧물이나 기침을 통해 전파되는 폐렴증, 뇌수막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하는 침습성 폐렴구균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특히,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접종과는 달리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한 번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폐렴증,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했으며, 매년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예방접종 대상은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

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받으면 된다.

보건소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올해 접종대상에 포함되는 1953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1:1 예방접종 안내문자 발송과 전화, 우편물 발송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준상 전주시 보건소장은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빠른 시일 내에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소에서 꼭 예방접종하시길 바란다"라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며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귀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르신들의 경우 폐렴구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